

새싹포커스 10월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새싹포커스 2013년 10월호

지금 유아교육과에서는!

학술제



10월 2일 가정관 8시 30분, 각 동아리 학생들이 하나, 둘 모여 전날 옮겨 놓았던 학술제에 사용할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활동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물품들을 배치하고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였다.

이날 학술제에는 학교 주변 유치원 유아들을 초대하여 약 300명의 유아가 각 동아리에서 준비한 활동

도 체험해보고 인형극도 보았다.

유아 문학연구회는 그림자공연인 “주먹이”와 막대인형극인 “아주 아주 많은 달”을 공연하였고 이야기공방은 “우드락 판화”, Shadow.com은 “젓은 수채

화 그리기”를 준비하였고, All Children은 “한국 컴패션 후원하는 유아에게 편지쓰기”와 창작동화인 “수하의 열기구여행”, “세계 여러 나라 전통의상 다문화 인형에게 입혀보기”, “사방 치기”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다. 또한, 학생회에서는 페이스 페인팅, 비눗방울, 다양한 게임을 준비하였다. 각 동아리와 학생회가 열심히 준비하였기 때문에 학술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유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 재학생들은 '유아 문학연구회의 공연을 관람하였고, 2학년의 PBL 발표'를 마무리로 하여 학술제를 마쳤다.

학생들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활동이 끝나니 시원섭섭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 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고 전했다.

Woosong University welcomes 641 applicants to ECE!

Woosong University was prepared to receive entering freshmen last October 5 and 6. There were 641 students who applied fo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 According to the local news, Woosong University had a highly competitive rate. The applicants were

asked to draw about their view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ECE professors interviewed the applicants from 9:00 a.m. to 7:00 p.m. The applicants shared that they were very nervous. We wish good luck to all the applicants!

교재교구 특강



10월 10일 우송관 506호에서 2학년 학생들이 “유아교육기관 교재·교구의 실제”라는 수업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유아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라는 수업을 듣는 2학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대전 유아교육진흥원 강미애 교육연구사님께서 바쁜 시간을 내어 특별히 강의를 해주셨다.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교구의 개념과 필요성, 중요성 등의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완성된 교구를 가져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다. 유치원에서 쓰이는 교재·교구를 자주 볼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었으며 곧 교재를 만들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특강이었다.

우리들의 이야기

핸드메이드 동호회에 가입하다.



3학년 김민정 학생이 핸드메이드 동호회에서 카드지갑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10월 8일,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우연히 3학년 이정현과 2학년 박지원을 만나 핸드메이드 동호회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 동호회는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으며 재료비만 내면 전담강사의 전문적

인 지도를 10주 동안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핸드메이드 동호회는 생활용품, 액세서리, 인형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동호회이다. 나는 평소에 만드는 것을 좋아하여 같이 활동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 활동은 ‘양말 인형 만들기’ 였다. 중학교 때, 방과 후 활동에서도 인형 만드는 활동에 참여했었는데, 그 때 재미있었던 기억이 많이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되었다. 만들어 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도 있긴 했지만, 평소에 경험하지 않은 색다른 경험이라 재미있었다.

양말인형을 만들고 난 후 카드지갑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친숙하고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앞으로는 팔찌, 머리핀 등을 만들 예정이며 다른 동호회와도 교류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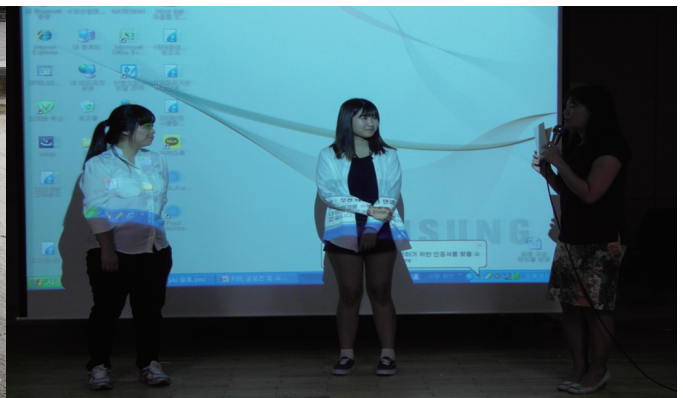
PBL 후기



2학년 김미정 학생이 속해 있는 4.5조가 PBL을 위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여름 학기 수업인 관찰 및 실습에서 PBL 수업을 진행하였다. PBL(Problem-based learning)은 실제적인 문제를 협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다. 학습자들이 공동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 후,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을 통해 공동의 해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다.

학생들에게 제시된 문제는 개개인이 우송유치원 초입교사와 실외환경 구성의 책임자가 되어 유치원 평가에 대비하여 우송유치원 실외환경을 구성해보는 것이었다. 우리 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 유치원과 전원 유치원을 견학하여 여러 실외 실내 환경들을 살펴보았다. 그 외에 유치원 인증 평가 자료를 찾아보고



2학년 김미정 학생이 학술제 때 PBL 발표를 하고 1등을 수상받는 모습이다.

추가할 실외환경 도구들과 자료들을 조사하였으며 KB 어린이집에 견학을 가서 원장님과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었다.

10월 02일 학술제 때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1등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동기들과 후배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많이 떨렸지만 잘 마무리한 것 같아 뿌듯하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임해준 조원들에 고맙고 부족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들어준 동기들과 후배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 여러 사람 앞에 서서 우리 조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어서 즐거웠다.

우송유치원 소식

우송 가족 운동회



어린이 리듬체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유아들이 볼풀공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버님들께서 이어달리기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다.

10월 27일 일요일 우송대학교 서 캠퍼스 체육관에서 우송유치원 가족 운동회를 실시하였다.

준비체조인 어린이 리듬체조를 시작으로 파란 하늘 반의 장애물 달리기와 2인 3각 게임, 하얀 구름 반의 터널 통과하고 돌아오기와 큰 공 굴리기, 낙하산 들고 달리기, 아람 반과 다솜 반의 손 잡고 징검다리 건너기, 밤 줍고 돌아오기, 종 치고 돌아오기 그리고 이어달리기, 아빠 이어달리기, 색 판 뒤집기 등의 게임이 진행되었다.

2013 우송 가족 운동회를 통해 우송유치원 어린이들과 가족이 함께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응노 미술관 견학



10월 31일 하얀 구름 반과 파란 하늘 반 어린이들이 이응노 미술관에 다녀왔다.

다양한 작품을 보고 즐겼으며 미술관 주변에 자연의



모습도 감상하고 자연물도 수집하고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6월에 미술관 견학을 왔을 때와는 달라진 환경을 느낄 수 있었다.

지혜나눔 프로젝트

좋은 교재교구 선별법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가 가능한 유니트 블록이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의 학습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과정에 다양한 매개체인 교재교구는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우며 교육활동의 내용과 질에 영향을 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좋은 교재교구를 선정할 때도 고려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외관상 매력적인 것만으로 유아의 흥미를 유도하기보다는 활용하는 과정이나 결과에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567번째 한글날, 23년 만의 공휴일



1970년 공휴일이 된 이래 영광을 누리던 한글날은 너무 잦은 공휴일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1991년부터 국군의 날과 함께 법정 공휴일에서 사라졌다가 안전행정부가 입법 예고했던 ‘관공서의

둘째, 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해야 한다. 유아의 현재 흥미와 인지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재교구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점차 수준을 변화시켜야 한다. 퍼즐 조각의 수를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제공하는 것처럼 교구는 유아들의 발달수준에 적합하도록 점차 수준을 변화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유아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도전과 성공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를 조장해야 한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구성된 유니트 블록은 유아들이 스스로 만들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구성해 볼 수 있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를 조장할 수 있다.

교사는 위의 고려할 점들을 바탕으로 유아에게 적절한 좋은 교재교구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012년 1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3년 올해부터 한글날은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세종대왕이 일반 국민을 위하여 만든 한글은 세계 제일의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문자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수한 언어이다. 이러한 훌륭한 모국어를 사용하여 자기 생각과 행동을 글자와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다.

23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 된 만큼 한글날이 하루 쉬는 날이 아닌 한글날 자체로 우뚝한 날이었으면 좋겠다.

만드는 사람들

담당교수 : 성원경 교수님

학 생 : 김진희

김민아 이다영 이정현 조예슬

김유리 김예솔 김지윤

박지원 박명옥 손혜원

